

# 用語의 是非

한국물류전략연구소 소장 김정환

## I. 서언

물류분야에 몸담은 지 어언 24년이 흘러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또 근래에는 유비쿼터스(Ubiquitous)라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 학계에서 일을 하면서 이내 못마땅한 것이 있었다면 물류용어에 대한 불만이다. 물론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글로벌화니 국제화니 하면서도 우리 한글만 전용하다보니 물류 관련 용어가 별 희한스런 용어들인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외래어를 꼭 번역해야 하는지 의문스럽고, 현장에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꼭 써야 하는지 안쓰럽다.

앞으로 밀려오는 외래어를 전부 국어화해서 써야 하는지 외래어를 그대로 받아 사용해야 하는지 생각 해 볼 일이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외래어의 통역도 하고 자료번역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통역이라니까 좀 이상하지만 업무상 또는 회의 시 불가피하게 된 사정으로 하게 되었었다.

나이가 들면서 영어 통역보다는 일본어 통역이나 자료번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장기간 이러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웃 일본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일본어를 그대로 통역이나 번역을 해왔지만 지금은 영어를 모르면 통역을 못할 정도로 영어가 쉬여서 말도하고 글이 쓰여 지고 있다. 혹자는 일본에서는 말이나 글에 영어를 많이 쓸수록 똑똑한 사람으로 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의 현상이다.

또 일본어와 영어의 합성어 등으로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또 책이나 잡지에는 영어를 영문으로 쓰지 않고 일본 “가타가나”(片仮名 : カタカナ)로 쓰여져 있어 번역에도 상당히 어렵다.

이러한 것들은 일본이 영어를 공영어로 사용하고부터 더욱 그러하다.

명사나 형용사를 영어 그 자체를 일부 받아들여 일본어화 하고 있다.

그들은 빨리 변화를 갈망하는지 점차 세계 속으로 한발 한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 II. 우리나라 물류용어의 현상과 문제점

물류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사용상의 형태



## 시 책 는 단

를 보면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 ① 알기 쉬운 용어
- ② 외래어
- ③ 혼돈하기 쉬운 용어
- ④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용어
- ⑤ 합성 용어

### 1. 알기 쉬운 용어

용어 중에서 어려운 외래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물류현장에서 누군가에 의해 빨리 이해되고 간단하고 발음하기 쉬운 통일 용어가 되고 가장 많이 현장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예로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포크리프트 트럭(fork lift truck)이 지게차로 통일어가 되었고 택배용어에서는 미국에서는 메신저서비스(messenger service) 일본에서는 바이크 서비스(Bic service)가 우리나라에서는 퀵 서비스(quick service) 등을 들 수 있다.

### 2. 외래어

#### ① 영어부문

영어는 형용사, 장치, 기기, 설비, 시스템 등의 명사가 수도 없이 많다. 앞으로 더 많은 용어가 도입되고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Logistics, Palletized, Outsourcing, SCM Supply Chain Management), 3PL(Third Party logistics), Cross docking, Sorting system, Piggy back system, Pallet, Rack, Conveyer 등

#### ② 日本語

일본어도 현장에 많이 쓰인다. 그런데 사용하는 형태가 영어와는 달리 그대로 쓰는 용어와 한자만 일본어이고 사용용어는 우리나라 발음 등이다.

하조(荷造 : にづくり) = 짐꾸리는 행위  
하자(荷姿 : にすかた) = 짐꾸린 모양  
상옥(上屋 : うわや) = 임시창고건물(우리나라에 헛간 따위)

반송(搬送 : はんそう) = 중력이나 기계적으로 운반되는 것

곤포(梱包 : こんぼう) = 짐꾸리는 포장(즉 목재, 금속재 등을 사용해 하는 포장)

이고(移庫 : いこ) = 창고 간 옮기는 것

### 3. 혼돈하기 쉬운 용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달리 사용하는 용어가 많고 또 일본어에서 수입된 용어가 그런 것들이 많다.

- 수송(輸送) 운송(運送) 운수(運輸)
- 하물(荷物) 화물(貨物)
- 하주(荷主) 화주(貨主)
- 운반(運搬) 반송(搬送)
- 배송(配送) 배달(配達)
- 택배(宅配) 특송(特送)
- 스택크레인(Stacker crane), 랙마스터(Rack master), 랙로저(Rack loader), 트랜스퍼 카(Transfer car)
- 트라버서(Traverser) 하이쉬프터(Hi shifter)
- 물류단지(物流團地), 집배송단지(集配送團地)

○ 집하(集荷), 집화(集貨) 등

#### 4.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용어

발음도 어렵고 뜻도 잘 이해되지 않는 용어이다. 파렛트화, 컨테이너화, 모떼기부, 격쇠, 노치 수평접질, 가시못 직접쌓기, 중첩쌓기, 권상기, 반송차, 화물갖춤 등 외래어를 까다롭게 번역하여 이런 용어가 등장한 것이다.

KS에는 무수한 이런 용어가 많다. 자칫하면 측구에 “코너킥”이 “구석차기”가 되는 북한식으로 번역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 5. 합성용어

유닛로드치수, 드라이화물, 벌크화물, 화물컨테이너, 파렛트화, 컨테이너화, 적재패턴, 물류모듈, 메카트로닉스, 오리콘박스. 이 합성용어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점차적으로 이런 용어가 많이 등장할 것으로 어차피 국제화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불가피하다. 이외에도 우리는 흔히 시스템적, 토탈적 등의 용어를 일상화하고 있는 상태이다.

### III. 용어의 중요성 인식 부족

용어를 경시한다는 것은 커다란 손실로 이어진다. 최근의 용어에서 말한다면 아웃소싱도 같은 경우이다. 이것을 이제까지 외주화나 외부위탁이 같은 뜻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것이다.

아웃소싱은 「자사에서 하는 것 보다 잘 해주는 곳이 있다면 물류는 그곳에 전면적으로 맡기고 싶

다」 혹은 「새삼스레 물류시스템 등을 하고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으므로 전문업자에게 전면적으로 위탁하고 있다」 라는 니즈 중에서 생겨난 것으로서 이제까지의 외주화와는 전혀 이질적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물류를 전면적으로 위탁한다는 그 가운데에는 물류시스템 그 자체의 개발 재구축도 포함되어 있다.

아웃소싱하는 기업은 이에 따라 자사의 단골분야에 특화한다는 목표가 있다. 아웃소싱을 이와 같이 이해한 경우 단순 외주화의 연장선상에서 다른 기업과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물류업자측면에서도 단순히 외주화로 취급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생각도 많을 것이다. 여기에 반하여, 앞으로 물류의 전면 위탁이 늘어난다고 본 기업은 대응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다.

시장으로서는 크기 때문에 장래 이들의 기업간 격차는 상상을 초월할 가능성이 있다.

용어 경시가 기업간 격차에 까지 확대된다고 하면 우려해야할 사항이다.

### IV. 디지털 시대에 걸 맞는 현실화의 필요

아날로그시대에 만들어진 물류표준용어가 디지털 시대에 이르러서도 구태의연한 상태로 이어져 가고 있다. 특히 물류현장에는 수많은 외래어와 기기메이커에서 만들어진 기기명 또 일본물류용어에서 도입된 어려운 용어와 외래어를 국어화하면서 어려운 용어로 번역해서 이해하기 곤란한 것이 많은 상태이다.

물류에서 로지스틱스에 걸친 경영관리면 및 기술면



의 모든 문제는 본래보다 무역관리의 사항 최신의 정보·통신관련, 과학적 경영관리의 모든 방법까지 폭 넓게 용어의 선택의 필요하다.

현재 물류 용어도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2항에 정의 되어있지만 재검토가 요망되고, KS규격의 물류 용어 해설도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 로지스틱스(Logistics)란 용어도 일상용어로 사용하면서도 그 정의나 설명은 법에서나 규격 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고, 물류현장에서 사용되는 물류관련 신규 용어를 흔히 사용하면서도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혼동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정비하여야 될 것이다.

유닛로드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물류관련 장치·기기 등의 표준화를 추진함에 있어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이제까지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해두었지만 물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적으로 물류에 관련한 용어가 사용되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다. 널리 물류관련용어의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주요 물류용어에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정보화 사회의 오늘날 정보기술은 나날이 발전하여 고도 정보화 사회라든가 정보 네트워크 사회라고 불려지고 있다.

물류를 유지하는 교통 인프라에 더해서 정보를 담당하는 정보통신 인프라가 확대되고 새로운 물류전문 용어가 수없이 사용되고 있어 현재까지 표준화가 안된 그대로 사용되고 물류현장과 학계에서의 혼동이 야기되고 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불일치를 해소하여야 될 것이다.

## V. 결언

우리도 이제는 변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염려스런 생각을 하게 된다.

모든 분야에 외래어가 물밀 듯이 밀려들어 오고 있다. 특히 일반분야도 그러하겠지만 특히 정보 분야에는 매일매일 새로운 용어를 접하게 된다. 이제 유비쿼터스(Ubiquitous)시대에 대응할 수 있게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 밀려들어오는 외래어를 막을 수 없고 변형시키는 번역도 부작용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우리 물류현장에는 헤아릴 수 없는 용어가 물류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정부에서 표준화 한 용어는 용어대로 현장에는 현장대로 사용하는 용어대로 제각기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물류라는 새로운 용어가 들어온 것은 80년도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또 로지스틱스(Logistics)라는 용어가 뒤따라 들어왔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로지스틱스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물류와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책당국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 그대로 사용하고 각종 시험장에서는 확실한 정의도 안된 용어를 시험문제로 출제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정립이 불가피하다.

